

건축계소식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을 공모한다. 응모부문은 준공건축물부문과 계획건축물부문이다. 준공건축물은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5월 1일 사이에 국내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로, 한국건축문화대상에 기술품한 사실이 없는 작품이어야 하며, 계획건축물의 작품주제는 ‘오래된 미래 나만의 우리’이다. 준공건축물부문 오는 6월 5일까지, 계획건축물부문은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으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68페이지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 내 공지사항 ‘2014 한국건축문화대상 작품 공모’를 참고하면 된다.

‘그린 리모델링 과정’ 제1기 교육생 모집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에서 ‘그린 리모델링 과정’ 제1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기간 및 이수기간은 5월 17부터 6월 25일까지 총 52시간의 이론 및 실습, 현장실습 등이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모집인원은 25명이며, 지원자격은, 건축 관련 분야의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료 납부자이다. 제출서류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교육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며, 최우수교육생에게는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원장상을 수여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대한건축사협회 친환경교육팀(02-3415-68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한건축사협회 녹색건축위원회, ‘녹색건축 세미나’ 개최

대한건축사협회 녹색건축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 29일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녹색건축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의 주제는 ‘녹색건축 관련 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박기범 사무관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방법’(이승민 부장 / 한국교육환경연구원), ‘건축물 에너지 절감(효율)을 위한 건축설계 기법 및 전략’(이승복 교수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방향’(황은경 연구위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참석 대상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및 회원사의 직원이며, 참석을 희망자는 협회 정책연구실 이메일(kira4@kira.or.kr)로 성명, 사무소명, 직위,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을 4월 21일까지 보내면 된다.

신간안내

작은 마을 디자인하기

이누이 구미코, 아마자키 료 공저 | 324쪽 | 디자인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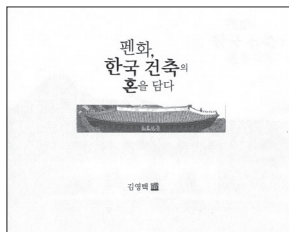
「작은 마을 디자인하기」는 주민과 디자이너가 함께 만든 일본의 작은 마을 이야기이다. 일본에서는 아마자키 현 노베오카 시 마을 재정비를 앞두고 색다른 프로젝트가 펼쳐졌다. 지역 주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마을 디자인. 책은 건축사 이누이 구미코가 묻고, 디자이너 아마자키 료가 답하는 방식으로, 마을 만들기 에 몰두한 일 년 동안 주고 받은 열아홉 차례의 왕복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

건축 설계가 가능하지 여부만 따지던 ‘마을 만들기’에서 벗어나, 그 지역주민의 삶과 활동에 연계지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을 디자인하기’로 시선을 돌린 두 전문가의 제법 진지한 고민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책의 저자 이누이 구미코와 아마자키 료는 ‘노베오카 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동시에 참여 디자인에 관해 묻고 답하는 편지를 주고받는다. 자신을 두고 ‘편협한 설계자의 대표’라 고백하는 이누이 구미코는 참여 디자인에 관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며 다양한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아마자키 료의 답을 끌어낸다.

〈작은 마을 디자인하기〉에서 ‘답하는’ 역할을 맡은 아마자키 료는 일본 건축계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젊은 건축사이다. 지금은 지역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 디자이너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펜화, 한국 건축의 혼을 담다

김영택 저 | 170쪽 | 서울셀렉션



‘기록펜화’의 대가 김영택 화백이 강선대, 거연정부터 회암사지 부도, 흥인문 등의 한국 전통 건축물을 그린 펜화 91점을 모은 책이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시작해 거의 30년간 건축 문화재를 펜화로 담아내고 있는 김영택 화백은 세밀화 분야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도 독보적 위치를 자랑하고 있는 작가다.

김 화백은 멀게는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전반기의 사진을 참조하는 등 자료 조사를 통해 건물의 원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했다. 건물 주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거나 나무 등이 가리고 있는 경우, 사진으로는 온전한 건물 전경을 담아낼 수 없지만 그림으로는 원래 건물의 특징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김 화백은 ‘김영택 원근법’이라는 자신만의 기법을 개발하기도 했다. [출처]